



인터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정영재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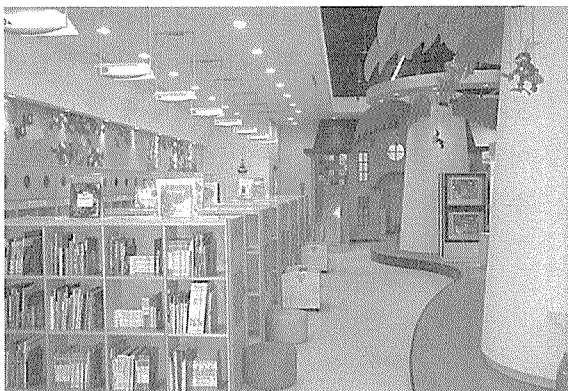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MBC TV “!느낌표”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가동되었고, 지난 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청에서는 지자체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노원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다. 이렇듯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전국의 어린이들과 아동교육 관계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2일 부산여자대학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학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기에 본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부산여자대학 정영재 어린이도서관장과 서면인터뷰를 하였다.

■ 진행 : 심효정

대학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는 것이 뜻밖입니다. 설립한 동기와 취지, 건립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은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아동학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본 대학의 아동학 관련 학과 중심이 되어 아동학 특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대학본부 및 상기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받아, 본 대학 중앙도서관과 8개의 아동학 특성화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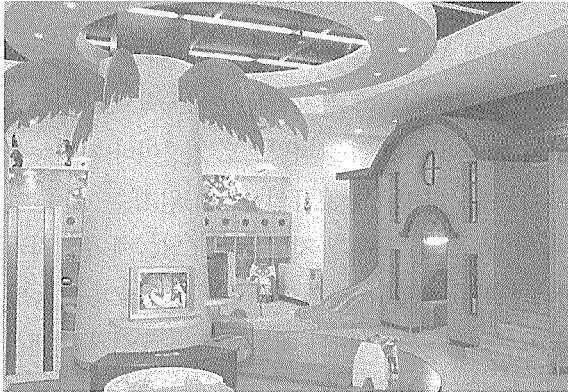
<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기자기한 실내환경을 꾸몄다. >

중 문학 분과 및 과학 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해 중앙도서관에서 준비해두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2003년 3월 12일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의 목적은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그 부모님을 위한 도서관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내적으로는 본 대학 아동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어린이도서관 실험 실습환경을 통한 학습향상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축 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둔 점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는 재미있는 놀이와 흥미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예를 들어, 방승국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아나운서, 촬영기사, 편집기사 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hands-on) 도서관을 시도하였다는 점입니다. 체험형 도서관이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해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깨닫고 습득하여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도서관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어린이 책 뿐만 아니라 적목, 인형, 장난감, 퍼즐 등 각종 놀이감을 비치하였으며, 컴퓨터실, 음률/미술영역, 과학탐구영역, 소꿉영역, 스토리텔링영역, 역할영역, 코스튬플레이 사진관, 노래방, VTR/DVD 시청코너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신체 및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서관이란 딱딱하고 지루한 곳이 아닌 즐겁고 신나는 곳, 한 번 오면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명칭을 “Magic Library”라고 하셨는데,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이 지향하는 뜻을 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명칭을 Magic Library라고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도서관에 오면 장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Magic Library는 어린이들의 독서흥미를 유발시키어 독서습관을 육성시키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적, 지적, 정서적, 창의력,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도서관입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는 빌 게이츠의 유명한 회고담처럼, 유년기 시절 저희 도서관의 마법(magic)에 의하여 어린이 개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토록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관 이후 운영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하루평균 이용자수나, 회원가입 수, 대출권수 등 통계수치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표나 도표 등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개관 이후 3월말까지 15일간의 통계를 보면, 연회비를 내고 대출회원으로 가입한 가족은 103 가족입니다. 일일 입관료를 내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25명인데, 요일별로 편차가 있어서 월요

일은 10명 이내이고 토요일엔 94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이 매일 30~40명씩 단체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4월까지의 단체견학 일정이 모두 짜여져 5월 이후로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예 : 동화구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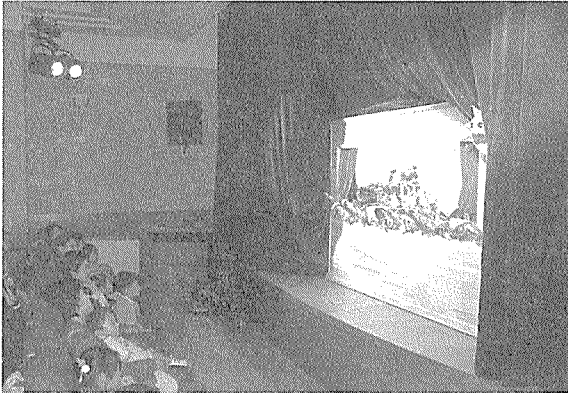
우 리 도서관은 관내 봉사 및 자료대출 뿐 아니라 집회, 행사 및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린이, 부모,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내용은 동화구연, 인형극, 그림자극, 특강, 영화감상 등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대학의 아동학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예술, 컴퓨터, 보전 등 모든 학과들,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한 학내 부속기관 및 동아리, 외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3월 29일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다도' 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60여명의 참석자들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이용규정이 입관료를 받고,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규정을 위와 같이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이용을 유료화한 목적은 첫째, 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부분적이거나 부과하도록 하여 도서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공공기관도 실제 운영비가 있어야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증이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도서관 이용료는(1일 입관료 1인당 500원 또는, 가족 연회비 20,000원) 모두 도서관 자료와 비품의 보수·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부모님들께 주지시켜 도서관 자료와 비품의 훼손과 파손 예방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학전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첫째, 도서관 직원들이 일일이 어린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혹여 도서관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지는 차원입니다. 둘째로는 보호자가 어린이의 행동들을 관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린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포함해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 리 대학 중앙도서관은 1998년부터 토요일과 방학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어 대학도서관이 지역 사회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건전한 오락과 여가의



〈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줄인형극을 흥미롭게 관람하고 있다. 〉

활용장으로서 다양한 봉사를 제공한다면 대학은 도서관 자원을 통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입니다. 대학은 또한 지역사회와의 좀더 친밀한 연계를 통하여 홍보는 물론 졸업생 취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즈음하여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도서관팀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도서관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본 대학 어린이도서관을 바탕으로 체험형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의 관련단체 등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지역 도서관에 책 보내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족 및 대구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에 생긴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된 안전문제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통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대구 시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서관계의 정성을 모아 대구시 도서관들에 좋은 책을 전해주려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성금과 책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증해 주신 성금과 책은 대구지역 도서관에 기증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명단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금 및 책 접수 기간 : 2003년 4월 24일(목) ~ 5월 24일(토) (1개월간)

◎ 보내주실 곳

- 성금 : 국민은행 (계좌번호: 088-01-0239-611 / 예금주: (사)한국도서관협회)

- 도서 : 협회 사무국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 단, 책은 2000년 이후 출판된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기증에 따른 비용은 회원께서 부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 : 신재은 팀장,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이메일 : booksale@korla.or.kr